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경험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이 상 진* · 정 옥 분**

동원대학*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The Effect of School Violence on Korean High School Students' Ego-Identity

Lee, Sang-Jin* · Chung, Ock-Boon**

*Tongwon College**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chool violence on Korean high school students' ego-identit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58 high school students from 4 different high schools in Seoul.

The Dignan's Ego-Identity Scale adapted by Seo, Bong-Yeon was used to assess ego-identity. It is composed of stability, goal-directedness, uniqueness, interpersonal role expectation, self-acceptance, self-assertiveness, sense of self,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e results indicated that school violence is closely related to the youth's ego-identity. It appeared valid to conclude that those who have experienced school violence (both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tend to be in the less advanced identity statuse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기에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면서 성장해 줄 것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바라고 있다.

청소년기는 제2의 개체화를 이루기 위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할 때, 부모에게 의존했던 에너지들이 분출하는 시기이며(Olsen, 1984), 또래와의 관계가 좀 더 복잡해지며 좀 더 구조화되어 가고 또 가족외의 사회적 연결망이 증가하는 시기이다(곽금주, 1995, 재인용). Marcia(1966)는 대인관계 요소 중 친밀성과 자아정체감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

을 보여주었고, 김민자(1991)의 연구 역시 교우관계의 지각이 자아정체감 중 인간관계 정체감과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교우관계와 또래의 역할이 극대화하는 시기에 학교라는 동일집단내의 인간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은 그 양상이 집단화, 연소화, 잔인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양적으로도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검찰이 1997년 9월부터 시작한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에 걸려온 전화를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의 65%는 가해자가 2명 이상인 집단폭행이고, 6명 이상이 가담한 집단폭행도 26.9%나 되었다. 폭행횟수도 1회에 그치는 경우는 42.6%에 불과했고, 2회 이상의 상습폭행이 57.4%를 차지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장소는 교내 화장실이나 창고가 65.5%, 등·하교길이 16.5%, 집근처는 5.3%였다(동아일보, 98년 2월 14일자). 폭력의 종류에 있어서도 금품갈취나 단순폭력에서 집단적인 따돌림, 시험지 보여주기 강요, 숙제나 심부름시키기 등 심리폭력의 양상이 증대되고 있다(정동채, 1997).

특히 이지매(집단 괴롭힘)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97년 6월말까지 각종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청소년만 2만 6천명, 집중관리를 받는 폭력서클도 760개에 달한다고 한다(신명중, 1997). 그리고 교육부에 의해 98년 9월까지 16개 시, 도 교육청을 조사한 결과 소위 “왕따”로 분류되는 집단 괴롭힘 경험은 중학생이 2,190명, 고등학생 1,253명, 초등생 1,971명으로 합계 5,414명이었는데, 이는 97년도 같은 기간의 678명보다 8배 증가된 수치였다(한국교육신문, 1998년 10월 20일자).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에 접수된 대표적인 피해사례의 경우를 살펴보면, 상호(가명, 중2)는 1년 가까이 동급생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왔지만 가해학생이 “선생님에게 이르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해서 혼자서 고민해왔다. 나중에는 정도가 심해져서 매일 담배 한 갑씩 바치라고 했고, 담배도 상호 가방에 보관시켰다. 담배를 갖고 가지 않은 날엔 가방을 빼앗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한다. 순오(가명, 중1)는 2년간 미국서 살다가 귀국해 같은 반 4명으로부터 계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괴롭히는 이유는 “영어를 말할 때 혀를 굴린다”, “한국말을 잘 못한다”, “체육시간에 운동을 잘 못한다” 등이다. 순오

부모가 가해학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타일렀지만, 1명 정도만 태도가 바뀌었고 나머지는 여전했다. 순오는 전학가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재혁(가명, 중1)은 하교길에 근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붙잡혀 건물 화장실로 끌려가서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돈이 없다고 하자 그 학생이 피우던 담뱃불로 재혁의 팔을 지졌고, 억지로 노래를 시켰다. 그후로부터 담배를 피우라고 강요하거나 자기 씨클에 들어오라고 협박했다. 재혁은 그때 담배를 배워 지금까지 끊지 못하고 있다. 주희(가명, 중1)는 가출한 상태에서 상당을 해왔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에 다니는 선배 5, 6명으로부터 씨클에 가입하라는 협박을 받았지만 담을 계속 미루었다. 중학교에 입학해서 최종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자 그 뒤로 만날 때마다 때렸다. 맞고 온 날은 부모에게 “넘어졌다”, “친구와 싸웠다”는 식으로 얼버 무렸다. 하루는 노래방으로 끌려가서 그 언니 남자 친구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부모에게 사실을 밝히는 것이 겁났고, 그 언니들을 피하려고 함께 피해당한 친구와 함께 가출한 것이다(조선일보, 1996년 10월 30일자). 모 공고 이모양(15세)은 98년 4월 16일 선배 13명으로부터 한강시민공원에 끌려가 집단폭행을 당한 후 “선배들이 꿈에 나타나서 무섭다”며 19일 동맥을 끊어 자살을 기도했다(문화일보, 1998년 4월 23일자). 98년 5월 29일 울산 H중학교 이모군(14세)은 2년 동안 동급생으로부터 폭력을 당해오다 학교건물에서 투신자살을 했다(중앙일보, 1998년 5월 30일자).

위의 통계와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학교폭력은 학교를 중심으로 하루의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동일집단내의 인간관계에서 발생하고 반복, 지속되는 특성 때문에 그 후유증이 매우 심각하다.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교우관계, 또래집단의 역할이 극대화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또래관계속에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자아정체감이 확립되어야 하는 청소년기에 학교폭력은 Erikson의 표현대로 정체감의 혼미를 가져다주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학교폭력의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정부는 검사 및 검찰관의 학교담당제, 우범불량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제, 학교폭력 신고센터 설치, 청소년보호 특별법 제정을 시행중이며, 사회일각에서는 학

부모와 연대하여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등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처벌일변도와 더 강력한 단속으로는 해결되지 않음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에, 청소년 이해와 교육적인 접근을 통한 학원폭력의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피해학생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인 학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Olweus(1993)는 조사대상의 1.6%, Stephenson과 Smith(1988)는 6%, Roland(1989)는 20%로 보고했고, 김준호(1996)의 조사통계에 의하면 대상 청소년 중 폭력경험이 없는 학생이 21.1%, 가해경험만 있는 학생이 21.9%, 피해경험만 있는 학생이 16.3%,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경험한 학생이 40.7%로 나타났다. 이는 학원폭력도 모방, 세습된다는 심각하고도 복잡한 양상을 보여 주는 것이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양분하고 그 특성에 따른 대책을 제시해 놓고 있는 기존의 연구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와 일반학생과의 비교는 물론, 가해학생이면서 동시에 피해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양면적인 새로운 양상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아정체감은 차이가 있는가?
- 2) 조사대상자의 학교 폭력 경험유형(경험없음, 가해경험, 피해경험, 가해 및 피해경험)에 따라 자아정체감은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자아정체감의 개념

아이덴티티(Identity)라고 하는 용어는 라틴어 identitas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적으로 동일하다”, “그 사람에 틀림없다”, “그것의 자기 자신”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박아청, 1984). Erikson(1968)은 자아정체감을 “개인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나는 무엇인가?”라는 자기동질성과 타인과의 상호관계에 의한 “나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자신의 본질적 동질성을 일관되게 견지하려는 연속성을 의

미한다고 했다. 또한 집단의 제반 이상(理想)과 정체감과의 내적 결말을 뜻하는 집단과의 동일시감, 또는 소속감을 뜻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성취와 같이 완성, 또는 고정불변이 아닌 사회적 정황속에서 부단하게 개정되는 자신에 대한 현실감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아정체감은 그 용어 자체가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를 갖고 있어 한 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확고한 자아정체감을 지닌 사람은 개별성, 총체성, 계속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개별성은 가치나 동기 또는 관심을 얼마쯤 타인과 공유했다 하더라도 자신은 타인과 다르다는 인식, 즉 자신은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인식이다. 총체성은 자신의 욕구, 태도, 동기, 행동양식 등이 전체적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계속성은 시간이 경과하여도 자신은 동일한 사람이라는 인식, 즉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사람이다라는 인식이다.

Erikson은 인간생애의 발달과정을 8단계로 나누고 매 단계마다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과 극복해야 할 위기를 개념화하였는데, 그 중 청년기의 발달과업과 위기를 정체감 형성 대 정체감 혼미로 정리하였다. 즉, 청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자아정체감의 확립, 즉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거대한 사회적 질서 속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라는 점을 정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한다.

정체감 형성이 전생애에 걸친 과정이라 할지라도 정체감의 문제는 청년기에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왜냐하면 많은 내적 변화가 일어나고, 미래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여러 가지가 문제되는 때가 바로 이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청년은 자기존재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해결이 쉽사리 얻어지지 않을 경우 방황하게 되며, 이것이 길어질 때 정체감 혼미가 온다.

Marcia(1966)는 Erikson의 자아정체감 위기개념을 역동적인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양한 충동과 능력, 신념 및 개인의 생활역사 등의 자생적인 내적, 역동적인 체계로서의 자기구조로 보았다.

서봉연(1975)은 자아정체감이 “명확하게 눈에 포착되는 것도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며, 다만 형, 동생, 친구, 학생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의 총체로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아정체감의 근간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 동질성의 지속에 있

다고 하였다.

박아청(1990)은 자아정체감이란 대인관계, 역할, 목표, 가치 및 이념 등에 있어서 자기가 지니는 '자기다움'에 대한 고유자각과 이와 부합되는 자기 통합성과 일관성을 견지해 나가려는 의식적, 무의식적 노력이라 하였다.

2. 학교폭력의 개념과 특성

폭력의 개념은 법률이나 사회규범에 위반하여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강요하거나 상처를 내는 것이라 정의되며, 신체적인 폭력과 함께 정신적인 폭력도 포함된다(표갑수, 1996). 학교를 중심으로 또래집단내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에 대해 Heinemann(1969)은 스칸디나비아의 용어로 'Mobbing'이라고 명명했고 그 후 Olweus(1987)는 또래간의 폭력행위는 집단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개인에 의해서도 나타난다는 의미를 포함시켜 'Bullying'이라 하였고, 오늘날까지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피해아동에 초점을 두고 'Victimiz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Tattum, 1989).

Olweus(1994)는 한사람이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행위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로 이때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관계가 힘의 불균형 상태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위의 여러 가지 정의를 요약한다면, 학교폭력의 정의에는 다음의 여섯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학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둘째, 고의적인 폭력행위이며, 셋째, 힘의 불균형에 의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며, 넷째, 한 아동에 대한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폭력이며, 다섯째, 물리적, 심리적 폭력이 포함되며, 여섯째, 장기간 반복적인 폭력일 뿐 아니라 단기간의 폭력행위도 그 결과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학교폭력에 포함된다(김종미, 1997).

최근 학교폭력의 양상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첫째, 폭력가담 학생의 연령이 하향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소년부에 송치되는 사건의 대부분이 중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이는 김준호(1997)의 연구에서 폭력 피해의 변화추이를 보면 알 수 있다.

둘째, 학원내의 폭력서클이 집단화 조직화되는 추세이다. 1995년 11월 교육부의 조사에 의하면 학

교폭력조직은 중학교에 288개, 고등학교에 448개, 중고교 남녀혼성조직이 303개 등 모두 1,039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른바 '일진회'라는 이름의 폭력서클은 이미 남녀 불문하고 각 학교에 보편화되어 있고, 그 밖에도 '개천파', '만리파' 등 특정 지명을 차용하거나, 차마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름의 서클도 있다. 이들은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한다'는 취지를 그 행동강령으로 삼고 있다. 여학생의 서클에서는 '싸움을 잘하고, 얼굴이 예쁘고, 옷을 잘 입고, 뺨이 있는 애' 등을 구성원의 선발기준으로 내세운다.

셋째, 피해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고 피해자가 다수를 이루며 그 결과 또한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1998년 5월 29일 울산 H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이모군이 투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효행상을 받을 만큼 모범생이었으나, 지난 2년 동안 동급생들의 폭력에 시달려왔다고 한다. 친구들의 진술에 따르면 같은 반 C군 등이 이군의 목, 얼굴, 머리 등을 몽둥이로 때리고 수돗가에서 물고문을 했으며, 책과 체육복 등을 준비해오도록 시킨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장실에서 허리띠로 마구 때렸으며, 사탕을 사오라 하고서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15분 안에 봉지채 다 먹으라고 시키기도 했다는 것이다(중앙일보, 1998년 5월 31일자). 이처럼 같은 반 급우들 여럿이 어느 특정 학생을 괴롭히는 '이지메'의 경우 피해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피해학생은 건디다 못해 등교거부, 전학, 자살 등의 결과를 낳는다.

넷째, 폭력이 다양화, 지능화, 흉포화되고 있다. 방과 후에 일정한 곳으로 불러낸 뒤 어른이 없는 빈 집에 데리고 가서 구타를 한다든가, 노래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음악을 틀어 놓고 기절할 정도로 구타하는 경우도 있다. 전화를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고, 매점에서 빵, 우유 등을 먹고나서 후배에게 대신 계산하게 하기도 한다. 피해학생은 처음에는 학용품을 아끼는 등의 방법으로 시작하다 여의치 않으면 부모를 속여 돈을 만들거나 절도하여 돈을 대거나 결국 가출에 이르기도 한다. 또 다른 사례에 있어서는 5명을 한 명과 싸우게 한 뒤 계속 싸우지 않는다고 때려 숨지게 한 경우도 있다.

다섯째, 폭력행위에 대한 죄의식이나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이 성인과

의 차이점이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7).

여섯째, 폭력에 대한 즉각적인 피해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97년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지역 초, 중, 고생 3,27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폭력을 경험한 학생의 30.1%는 폭력 피해사실을 가족이나 경찰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그 이유로는 '소용이 없어서', '보복이 두려워서', '피해가 경미해서', '수치심 때문에' 등의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특히 폭력 피해를 알린 뒤 문제가 해결됐다는 응답은 32.8%에 그쳤으며, 해결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45.8%,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본 경우가 13.7%로 나타났다(조선일보, 1998년 3월 13일자).

학원폭력사건의 대부분이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까닭에 보복을 두려워한 나머지 즉각적인 피해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해지는 상황은 바로 친숙한 집단내에서 구조화 될 때이다.

3. 학교폭력과 자아정체감

학교폭력과 자아정체감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알아본 연구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인다. 대신 학교폭력의 피해로 인한 전반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Moore와 Hillery(199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피해아동은 자아존중감과 만족감이 낮고, 학교폭력을 당하지 않는 아동에 비해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며, 매우 불안해하고, 덜 행복해하며, 스스로 인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arp와 Smith(1994)의 연구에서도 피해아동은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을 잃고, 이로 인해 집중력과 학습능력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했다. 또한 아동에 따라서는 복통, 두통을 호소하며, 악몽이나 공격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며 등교 기피와 안전한 자신의 집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증상까지 초래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손상과 억압현상이 성인기까지 지속됨으로써 성인기의 사회적 적응에까지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희영(1997)의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피해가 심할수록 감정적, 사회적 고립감이 많이 느끼고 있으며, 가해 경험이 많은 학생도 사회적 고립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아동의 경우는 사회적 부적응과 학습 부적응을 보임은 물론 성인기에 범죄자나 알콜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Eron, 1987).

가해아동이면서 동시에 피해아동인 경우는 Olweus(1993), Stephenson과 Smith(1988), Roland(1989) 등의 연구결과 일반 피해아동보다 신체적으로 강하고 자기주장도 강했다. 또한 또래 중에서 가장 인기가 낮고, 쉽게 화내며, 또 자주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준호(1996)의 연구에서는 이들은 폭력문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고, 공격성, 폭력허용도가 높으며, 주변에 비행친구가 많고, 학교에 대한 적응력이 낮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들은 보다 복잡한 심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표집대상은 서울 지역의 4개 고등학교에서 표집된 200명의 남녀 학생이며 최종분석 대상 학생은 158명이었으며,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연구절차

자료수집은 예비조사(1998년 7월) 및 본조사(1998년 8월)의 2단계로 이루어졌다. 예비조사는 조사에 사용될 질문지들의 내용 타당도와 의사전달도 및 반응 획득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고,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조사는 1998년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실시되었는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집단면접방식으로 수행되었고, 집단면접의 단위는 한 학교 당 2개 학급이었다. 담임교사의 협조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학생들이 직접 기입하도록 한 후에 그 자리에서 회수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조사된 전체 표본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분석통계에 사용한 것은 158부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는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과 학교폭력의 경험을 묻는 질문과, 그리고 자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158

변 인	항 목	명(%)	변 인	항 목	명(%)	
학교 계열	인문계	90(57.0)	부의 직업	단순노무/고용판매	30(19.0)	
	실업계	68(43.0)		자영상인/제조업	24(15.2)	
학교폭력 경험	가해경험	18(11.4)		사무직	30(19.0)	
	피해경험	21(13.3)		전문기술직	20(12.7)	
	가해/피해경험	19(12.0)		경영관리직	16(10.1)	
	경험 없음	100(63.3)		기타	38(24.1)	
성 별	남자	86(54.4)		모의 취업 여부	취업	67(47.9)
	여자	72(45.6)			비취업	73(52.1)
연 령	16세 이하	76(48.1)		종교형태	기독교	61(38.6)
	17세	45(28.5)			천주교	15(9.5)
	18세 이상	37(23.4)	불교		30(19.0)	
	평균	16.72세	무교 및 기타		52(32.9)	
부모 관계	친부모	151(96.2)	월평균 용돈	10만원 미만	62(39.2)	
	기타	6(3.8)		10 ~ 19만	53(33.5)	
				20만원 이상	43(27.2)	
				평균	203,622 원	

아정체감의 척도로 구분된다.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특성은 성, 연령, 학교계열, 학교폭력경험, 부모와의 관계, 부의 직업, 모의 취업 여부, 종교, 월평균 용돈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배경에 대한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폭력경험유무와 유형에 관한 질문은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아정체감의 척도는 서봉연(1975)이 Dignan의 Ego Identity Scale을 한국 학생에 맞게 번안한 것으로 신뢰도 및 타당도가 입증되었으며 총 64개의 문항과, 8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 척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안정성(Stability) : 시간의 경과와 유동적인 대인관계 속에서도 일관된 동질적인 나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말한다.
- ② 목표지향성(Goal-directedness) : 자신의 인생 목표가 무엇이며, 자신의 행동의 방향과 자신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뜻한다.
- ③ 독특성(Uniqueness) : 현재의 능력과 신체적, 심리적 특성 면에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아상을 말한다.

④ 대인역할기대(Interpersonal role expectation) :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상이한 여러 역할에 따라 기대되는 다소 일시적이고 특징적인 자아상을 말한다.

⑤ 자기수용(Self-acceptance) :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의 규준에 비추어, 좋게 생각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거나 혹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자아상을 말한다.

⑥ 자기주장(Self-assertiveness) : 자기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인식하고, 개인에 대해 이를 표명할 수 있는 태도와 경향성을 말한다.

⑦ 자기존재의식(Sense of self) : 자기존재와 자신의 심리적, 신체적 특성들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말한다.

⑧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 :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취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의미한다.

4. 자료처리

통계처리는 SAS PC+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χ^2 , t-test, ANOVA 등을 실시하였다. ANOVA가

유의한 경우 추후검사로 Scheffé검사를 실시하였다. 자아정체감에 대한 평가항목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여 매우 그렇다 5점, 약간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형식으로 정량화하였으며, 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역으로 채점하였다. <표 1>의 '부모관계'에서 친부모가 96.2%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되어 지나친 편포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후 자료분석에서 이 항목은 모두 제외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정체감 및 학교폭력 경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정체감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항목별 자아정체감을 측정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정체감

변인	항 목	안정성		대인역할기대		대인관계		목표지향성		자기주장		독특성		자기존재의식		자기수용	
		평균	F/t	평균	F/t	평균	F/t	평균	F/t	평균	F/t	평균	F/t	평균	F/t	평균	F/t
학교 계열	인문계	2.41		3.05		2.60		2.34		2.56		2.90		2.46		2.42	
	실업계	2.39	0.24	2.98	0.89	2.63	-0.47	2.39	-0.19	2.56	0.081	2.79	1.46	2.46	0.02	2.58	-1.74
성별	남	2.33		3.02		2.57		2.32		2.53		2.81		2.40		2.44	
	여	2.49	-2.04*	3.02	-0.04	2.66	-1.18	2.39	-1.70	2.59	-0.79	2.90	-1.04	2.53	-1.29	2.56	-1.32
연령	16세이하	2.52a		3.08		2.64		2.64a		2.57		2.84		2.52		2.58	
	17세	2.42a	7.23***	2.96	1.17	2.59	0.24	2.48ab	3.28**	2.56	0.08	2.91	0.38	2.44	0.55	2.44	2.19
	18이상	2.14b		2.98		2.59		2.22b		2.54		2.82		2.38		2.36	
부의 직업	노무, 고용	2.16b		2.85b		2.42		2.15		2.58		2.68		2.33		2.38	
	자영, 제조업	2.45ab		3.09a		2.70		2.52		2.57		2.95		2.41		2.39	
	사무직	2.55a	2.76*	3.24a	3.02*	2.64	1.85	2.45	1.72	2.53	0.02	2.94	1.59	2.60	0.65	2.43	1.23
	전문기술직	2.28ab		2.86b		2.63		2.42		2.48		2.69		2.47		2.71	
	경영관리직 기타	2.46a		3.04ab		2.77		2.40		2.60		2.92		2.47		2.61	
			3.01b		2.62		2.37		2.59		2.91		2.48		2.53		
모의 취업	취업	2.45		3.05		2.55		2.38		2.58		2.92		2.48		2.55	
	비취업	2.50	-0.61	3.06	-0.11	2.71	-2.16*	2.47	-1.01	2.57	0.16	2.83	0.99	2.50	-0.18	2.51	
종교 형태	기독교	2.43		3.00		2.64		2.42		2.50		2.76		2.39		2.44	
	천주교	2.55	0.57	3.11	0.22	2.63	0.60	2.34	0.79	2.41	1.40	2.68	2.55*	2.65	0.90	2.69	1.00
	불교	2.35		3.02		2.66		2.46		2.63		2.90		2.44		2.56	
	무교/기타	2.37		3.01		2.55		2.30		2.63		2.99		2.51		2.45	
월평균 용돈	10만원미만	2.35		3.00		2.62		2.35		2.49		2.81b		2.50		2.50	
	10-19만원	2.48	0.86	3.07	0.54	2.70	2.62	2.40	0.13	2.61	1.07	2.75b	4.28*	2.34	1.66	2.53	0.35
	20만원이상	2.39		2.98		2.50		2.40		2.60		3.04a		2.55		2.43	

P<.05* P<.001***

a, b 같은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1) 안정성

성별, 연령, 부의 직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직업별로는 부의 직업이 사무직과 경영관리직인 집단이 단순노무/고용판매직인 집단에 비하여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월평균 용돈, 학교계열, 모의 취업유무, 종교형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대인역할 기대

부의 직업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부의 직업이 사무직인 집단이 전문기술직인 집단에 비하여 대인역할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평균을 통하여 전반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계열별로는 인문계 집단이 실업계 집단에 비하여 대인역할 기대가 약간 더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의 대인역할 기대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연령별로는 16세 이하인 집단이 17세 이상인 집단에 비하여 대인역할 기대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집단과 비취업집단이 대인역할 기대에 있어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종교형태별로는 천주교 집단이 다른 종교 집단에 비하여 대인역할 기대가 높았고, 월평균 용돈별로는 월평균 용돈이 20만원 이상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대인역할 기대가 약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대인관계

모의 취업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즉, 조사대상자의 어머니가 비취업집단이 취업집단에 비하여 대인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평균을 통하여 전반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계열별로는 인문계와 실업계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대인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16세 이하인 집단이 17세 이상인 집단에 비하여 대인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의 직업별로는 부의 직업이 경영관리직인 집단이 대인관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순노

무/고용판매직인 집단이 대인관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형태별로는 무교 및 기타인 집단이 다른 종교집단에 비하여 대인관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용돈별로는 월평균 용돈이 10~19 만원인 집단이 20만원 이상인 집단에 비하여 대인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목표 지향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항목 중 목표 지향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아정체감 항목 중 목표 지향성은 조사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즉 연령이 16세 이하인 집단이 18세 이상인 집단에 비하여 목표 지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평균을 통하여 전반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계열별로는 실업계와 인문계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목표 지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의 직업별로는 자영업/제조업인 집단이 목표지향성이 가장 높았으며, 단순노무/고용판매직인 집단은 목표 지향성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비취업집단이 취업집단에 비하여 목표 지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형태별로는 불교인 집단에서 목표 지향성이 가장 높았고, 무교 및 기타인 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용돈별로는 월평균 용돈이 10만원 이상인 집단이 10만원 미만인 집단에 비하여 목표 지향성이 조금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5) 자기주장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평균을 통하여 전반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계열, 성별, 연령은 집단에 관계없이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부의 직업별로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부의 직업이 경영관리직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자기주장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집단과 비취업집단이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종교형태별로는 불교·무교 및 기타인 집단에서 자기주장이 높게 나타났고, 천주교인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용돈별로는 용돈이 월평균 10만원 이상인 집단이 월평균 10만원 미만인 집단에

비하여 자기주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독특성

종교형태, 월평균 용돈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종교형태별로는 천주교인 집단이 무교 및 기타인 집단에 비하여, 월평균 용돈별로는 월평균 용돈이 20만원 이상인 집단이 20만원 미만인 집단에 비하여 독특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평균을 통하여 전반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계열별로는 실업계 집단이 인문계 집단에 비하여 독특성이 더 높았으며,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독특성이 약간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17세인 집단이 다른 연령에 비하여 독특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부의 직업별로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부의 직업이 단순노무/고용판매·전문기술적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독특성이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집단이 비취업집단에 비하여 독특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자기존재의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평균을 통하여 전반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계열별로는 실업계와 인문계 두 집단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자기존재의식이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자기존재의식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부의 직업에 따른 자기존재의식은 비교적 유사한 분포를 보였으나 부의 직업이 사무직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자기존재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집단과 비취업집단이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종교형태별로는 천주교인 집단에서 자기존재의식이 가장 높았으며, 기독교인 집단에서 자기존재의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월평균 용돈별로는 용돈액이 월평균 10~19만원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자기존재의식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8) 자기수용

자기수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평균을 통하여 전반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계열별로는 실업계 집단이 인문계 집단에 비하여 자기수용이 약간 더 높았으며,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자기수용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자기수용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의 직업별로는 부의 직업이 전문기술직·경영관리직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자기수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단순노무/고용판매·자영업/제조업은 비교적 자기수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집단과 비취업집단이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종교형태별로는 천주교 집단이 다른 종교집단에 비하여 자기수용이 높았고 용돈의 경우는 월평균 용돈이 20만원미만인 집단이 20만원이상인 집단에 비하여 자기수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문계 학생은 안정성과 독특성에서, 실업계 학생은 대인관계와 목표 지향성면에서 각각 높은 정체감을 가진 것은 사회가 두 부류를 바라보는 인식에 의한 영향이 있는 것 같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청소년들의 모색을 엿볼수 있는 결과이다.

둘째,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낮은 정체감을 보인 것은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생활환경과 성장에서 오는 활동영역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화되어 가는 여학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아정체감이 더 낮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견할 수 있다.

셋째, 연령에 있어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모든 항목에서 낮았는데 이는 잘못된 사회환경, 가정과 학교에서의 겪는 갈등과 좌절감의 증대로 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부의 직업의 경우는 체면문화가 강조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말해주듯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청소년에 대한 바른 직업의 가치관 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

다섯째,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취업주부의 자녀가 정체감이 낮았는데 이는 취업시 자녀 양육부분에 애로가 많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며, 어머니의 역할을 타인이 해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 경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학교폭력 경험을 측정된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반적으로 폭력경험이 없는 집단이 가장 많았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경험

N (%)

항 목		가해경험	피해경험	가해/피해경험	경험 없음	합계	χ^2
학교 계열	인문계	9(10.00)	15(16.67)	16(17.78)	50(55.56)	90(56.96)	9.88* df=3
	실업계	9(13.24)	6(8.82)	3(4.41)	50(73.53)	68(43.04)	
성별	남자	15(17.44)	19(22.09)	19(22.09)	33(38.37)	86(54.43)	51.49*** df=3
	여자	3(4.17)	2(2.78)	—	67(93.06)	72(45.57)	
연령	16세 이하	11(14.47)	7(9.21)	2(2.63)	56(73.68)	76(48.10)	49.80*** df=6
	17세	1(2.22)	5(11.11)	3(6.67)	36(80.00)	45(28.48)	
	18세 이상	6(16.22)	9(24.32)	14(37.84)	8(21.62)	37(23.42)	
부의 직업	노무/고용직	8(26.67)	6(20.00)	7(23.33)	9(30.00)	30(18.99)	31.51** df=15
	자영/제조업	2(8.33)	5(20.83)	4(16.67)	13(54.17)	24(15.19)	
	사무직	1(3.33)	5(16.67)	1(3.33)	23(76.67)	30(18.99)	
	전문기술직	2(10.00)	2(10.00)	—	16(80.00)	20(12.66)	
	경영관리직	—	1(6.25)	3(18.75)	12(75.00)	16(10.13)	
기타	5(13.16)	2(5.26)	4(10.53)	27(71.05)	38(24.05)		
모의 취업여부	취업	7(10.45)	11(16.42)	4(5.97)	45(67.16)	67(47.86)	3.71 df=3
	비취업	5(6.85)	6(8.22)	8(10.96)	54(73.97)	73(52.14)	
종교 형태	기독교	3(4.92)	7(11.48)	10(16.39)	41(67.21)	61(38.61)	15.56 df=9
	천주교	2(13.33)	4(26.67)	—	9(60.00)	15(9.49)	
	불교	3(10.00)	7(23.33)	4(13.33)	16(53.33)	30(18.99)	
	무교및기타	10(19.23)	3(5.77)	5(9.62)	34(65.38)	52(32.91)	
월평균 용돈	10만원미만	11(17.74)	10(16.13)	9(14.52)	32(51.61)	62(39.24)	12.64* df=6
	10~19만	3(5.66)	7(13.21)	2(3.77)	41(77.36)	53(33.54)	
	20만원이상	4(9.30)	4(9.30)	8(18.60)	27(62.79)	43(27.22)	

P<.05* P<.01** P<.001***

며 그 다음은 피해경험, 가해/피해경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청소년의 경우 학교 폭력 경험이 없는 집단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남자청소년이 폭력에 더 노출되어 있고, 공격적인 행동을 격려하는 문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겠다.

연령에 따라 학교폭력 경험을 살펴보면, 연령이 17세 이하인 집단은 학교 폭력 경험이 없는 집단이 대부분이었고, 연령이 18세 이상인 집단은 가해/피해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피해경험, 경험없음, 가해경험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험이 많을수록 역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게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며, 피해 경험자들도 결국은 가해자로 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때 이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다.

부의 직업에 따라 학교폭력 경험을 살펴보면, 부의 직업이 단순노무/고용판매인 집단은 경험없음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가해/피해경험, 가해경험, 피해경험의 순으로 나타났고, 자영업/제조업인 집단은 경험없음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피해경험, 가해/피해경험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무직·전문기술직·경영관리직·기타인 집단은 경험없음이 대부분이었다.

모의 취업유무에 따라 학교폭력 경험을 살펴본 결과 두 집단이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형태에 따라 학교폭력 경험을 살펴보면, 기독교인 집단은 경험없음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은 가해/피해경험, 피해경험의 순으로 나타났다. 친구주요인 집단은 경험없음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피해경험, 가해경험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교인 집단은 경험없음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피해경험, 가해/피해경험, 가해경험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교 및 기타인 집단은 경험없음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가해경험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용돈에 따라 학교폭력 경험을 살펴보면, 월평균 용돈이 10만원 미만인 집단은 경험없음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가해경험, 피해경험, 가해/피해경험의 순으로 나타났다. 10~19만원인 집단은 경험없음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20만원 이상인 집단은 경험없음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가해/피해경험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많은 용돈이 자녀의 비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고정자와 김갑숙(1992)의 연구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3. 학교폭력경험 유형에 따른 자아정체감

조사대상자의 학교폭력경험 유무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고, 조사대상자의 학교폭력경험 유형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첫째, 학교폭력 경험 유무에 따른 자아정체감은 안정성($P < .001$), 대인역할기대($P < .05$), 목표지향성($P < .05$), 자기존재의식($P < .05$), 자기수용($P < .05$)의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안정성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는데 학교폭력 경험집단이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하여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일관되게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갖지 못하고 불안해 한다는 O'Moore와 Hillery(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대인역할기대에 있어서도 가해경험이 있는 집단이 감정적, 사회적 고립감을 많이 느끼며, 자기자신을 스스로 인기가 없다는 생각과 타인에게 귀찮은 존재로 인식된다는 기존 연구들의 원인을 규명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목표지향성의 자아정체감이 낮은 것 역시 낮은 만족감, 학습부적응, 사회적 부적응의 영향으로 인한 자신의 방향 감각을 상실한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자기존재의식의 낮은 자아정체감을 보인 결과도 자신의 심리적, 신체적 특징을 잘 알지 못하고 자기 손상과 억압하에 있다는 Sharp와 Smith(1994)의 보고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자기수용면에서도 낮은 자아정체감을 보인 것은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신이 속한 사회와 기존문화를 수용 또는 거부할 때의 판단력이 흐려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희영(1997)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둘째, 학교폭력유형을 비교한 자아정체감 수준은 안정성($P < .001$), 자기수용($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경험만 있는 경우는 안정성, 대인역할기대, 독특성, 대인역할기대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정체감

<표 4> 학교폭력 경험유무에 따른 자아정체감

항 목	학교폭력 경험유무	평균	t	항 목	학교폭력 경험유무	평균	t
안정성	유	2.13	-5.45***	자기주장	유	2.55	-0.27
	무	2.56			무	2.57	
대인역할기대	유	2.91	-2.24**	독특성	유	2.77	-1.48
	무	3.08			무	2.90	
대인관계	유	2.55	-1.46	자기존재의식	유	2.32	-2.33*
	무	2.65			무	2.55	
목표지향성	유	2.27	-2.06*	자기수용	유	2.36	-2.26*
	무	2.45			무	2.57	

$P < .05^*$ $P < .01^{**}$ $P < .001^{***}$

〈표 5〉 조사대상자의 학교폭력 경험유형에 따른 자아정체감

항 목	학교폭력경험의 종류	평균	F	항 목	학교폭력경험의 종류	평균	F
안정성	가해경험	2.06 b	9.98***	자기주장	가해경험	2.77	2.45
	피해경험	2.18 b			피해경험	2.37	
	가해/피해	2.15 b			가해/피해	2.51	
	경험 없음	2.56 a			경험 없음	2.57	
대인 역할기대	가해경험	2.83	2.58	독특성	가해경험	2.65	1.25
	피해경험	3.04			피해경험	2.82	
	가해/피해	2.84			가해/피해	2.84	
	경험 없음	3.08			경험 없음	2.90	
대인관계	가해경험	2.54	0.79	자기 존재의식	가해경험	2.40	2.27
	피해경험	2.51			피해경험	2.37	
	가해/피해	2.59			가해/피해	2.18	
	경험 없음	2.65			경험 없음	2.55	
목표 지향성	가해경험	2.30	1.65	자기수용	가해경험	2.63 a	3.87*
	피해경험	2.32			피해경험	2.23 b	
	가해/피해	2.18			가해/피해	2.23 b	
	경험 없음	2.45			경험 없음	2.57 a	

P<.05* P<.001***

a, b 같은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을 보였고,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자기 주장은 다른 폭력 유형경험과 폭력경험이 없는 경우의 모든 집단보다 강하였다. 이 결과는 가해경험 피해를 동시에 경험한 집단이 자기주장이 가장 높다는 Olweus(1993)의 결과와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가해경험이 있을 경우는 부정적인 자기주장이 강하다는 공통점을 나타내주는 결과를 보여준다. 피해만 당한 경우는 대인관계, 자기 수용, 자기주장 면에서 가장 낮은 정체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복통이나, 두통, 악몽이나 공격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며 일부 아동들은 학교폭력을 당하지 않으려고 학교를 기피하고, 자신의 집을 떠나기를 두려워한다는 Sharp과 Smith(1994)의 연구결과에 대한 원인과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가해와 피해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집단은 전체적으로 자아정체감이 낮았으나 특히, 대인 역할기대, 목표지향성, 자기존재의식, 자기 수용면에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 결과는 이들이 또래집단에서 가장 인기가 낮고, 쉽게 화내며, 자주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한다는 Roland(1989)의 보고에 대해 근본적인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해와 피해경험이 갖는 특징들을 중첩해 경험함으로써 오는 복잡한 심리 때문에 학교폭력의 상승, 강화작용을 가져올 소지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경험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정체감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계열은 실업계가 인문계보다, 성별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연령은 18세 이상이 그 미만보다, 부의 직업에 있어서는 단순노무 및 고용판매직 자녀가, 모의 취업여부에 있어서는 취업모를 둔 자녀가, 종교

는 불교의 경우가, 월평균 용돈에 있어서는 월 10만원 미만인 그 이상보다 자아정체감 수준이 낮았다.

둘째, 학교폭력 경험유무에 따른 자아정체감은 안정성, 대인역할기대, 목표지향성, 자기존재의식, 자기수용의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는 없었으나 나머지 3개 항목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폭력경험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아정체감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셋째, 학교폭력 경험유형에 따른 자아정체감은 안정성, 자기수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교폭력 경험유형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경험만 있는 집단은 자기주장, 자기수용의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피해경험만 있는 학생들은 자기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지 못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해경험만 있는 집단은 안정성, 대인역할기대 점수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가해경험만 있는 학생들은 자신의 상이한 여러 역할에 따라 기대되는 자아상이 안정적이지 못함을 보여준다. 피해와 가해경험이 모두 있는 경우는 안정성, 대인역할기대, 목표지향성, 자기존재의식, 자기수용에서 자아정체감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이 모두 있는 경우 자신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목표, 행동의 방향, 자신의 욕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으며,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낮고,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피해경험이든 가해경험이든 학교폭력의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는 예상했던대로 8개 하위요인 대부분에서 자아정체감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학교폭력 경험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학교폭력의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는 자아정체감이 가장 높은 수준에 있으며,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모두 있는 경우 자아정체감이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연구의 제한점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건전한 자아정체감을 확립해 나가야하는 청소년시기에 발생하

는 학교폭력에 대해 청소년의 이해와 교육적인 입장에서 원인분석과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조사대상자를 서울지역에서만 표집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 전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정체감 척도가 검증된 거친 외국의 것을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나 내용의 의사전달도 및 반응회복력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생들을 배제한 고등학교 학생중심의 연구였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의 하향화 추세에 따른 실정과 수준에 맞는 척도개발로 초등학교와 중학생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3. 제언

본연구의 결과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점은 학교폭력과 관계된 청소년들에게 무관심이나 처벌 일변도의 단속 모두 이미 폭력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여 복잡한 청소년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발적인 실수나 비행에 대해서는 먼저 벌을 주는 대신 폭력행위에 대한 죄의식이나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적절한 교육과 재활을 통해 반성하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한다. 이는 임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개인의 개인차를 고려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품성교육을 강화할 때 일그러진 자아상을 회복하고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상담활동과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폭력경험여부와 그 유형을 잘 파악한 적절한 지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통제 능력과 갈등해소 능력을 계발하는 등의 전문적인 프로그램 등을 모든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위의 노력과 함께 학교폭력의 발생요인을 제공하는 가정, 사회, 학교의 여러 변인과 관련된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연구가 구체화되기를 제안하며 그 결과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을 저해하는 모든 유해환경도 정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지원(1996). 청소년 범죄의 실태 및 대책. 서울교육

- 여름호.
고정자. 김갑숙(1992). 청소년의 흡연행동과 비행행동과의 관계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0(1), 311-324.
- 김종기(1996). 학교폭력의 실태 및 그 대처 방안. 서울교육 여름호.
- 김종미(1997).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성격과 유발요인.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2), 17-33.
- 김준호(1997). 한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 청소년개발원.
- 박아청(1984). 아이덴티티 탐색. 서울 : 정민사.
——(1987). 청년과 아이덴티티. 서울 : 배영사.
——(1990). 아이덴티티의 세계. 서울 : 교육과학사.
——(1996). 한국청소년의 정체감 발달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9(2), 68-78.
- 신명중(1997). 최근의 학교폭력 동향과 보호처분. 시민과 변호사 9월호.
- 서봉연(1975).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 이영숙(1993). 가정과 청소년 문제. 한국 청소년 개발원 청소년문제 세미나 자료.
- 이희영(1997).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회, 심리적 문제에 관한 연구. 숭실대 석사학위 논문.
- 이호연(1996). 현장에서 본 학교폭력과 학교 교육. 서울교육 여름호.
- 정동채(1997). 청소년 폭력의 실태와 대책. 월간 시민과 변호사 9월호.
- 조복희·정옥분·유가효(1997). 인간발달 : 발달심리적 접근. 서울 : 교문사.
- 조남희(1997). 청소년 학원폭력의 예방과 대책. 월간 시민과 변호사 9월호.
- 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6). 학교폭력,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 : 한울림.
——(1996). 폭력은 싫어요-학교폭력의 예방과 지도.
- Erikson, E. H.(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 W. Norton Company.
- Erikson, E. H.(1968). *Identity :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Company.
- Eron, L. D., Huesmann, L. R, Dubow, E., Romano F, R & Yamel, P. W.(1987). Aggression and its correlates over 22 years. In D. Growell, I. Evans & C. O Donnel(Eds.), *Childhood Aggression and Violence*(pp. 249-262). New York: Plenum Press.
- Heinemann, P. P.(1969), *Apartheid, Lieral Debatt*, 2, 3-4.
- Lane, D. A.(1989). Violent Histories: Bullying and Criminnality. In D. P. Tattum & D. A. Lane(Eds.), *Bully in Schools* (pp. 95-104). Stoke-on-Trent: Trentham Books.
- Marcia, J. E. (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 - 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551-558.
- Marcia, J. E.(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oseph Adelson(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John Wiley & Sons.
- Olsen. G. Kieth(1984). Counseling Teenagers : The Complete Christian Guide to Understanding and Helping Adolescent. Group Books, p.315.
- Olweus, D.(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es and whipping boys*. London: Hemisphere.
- Olweus, D.(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Oxford: Brackwell Publishers.
- Olweus, D.(1994). Annotation: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35 (7), 1171-1190.
- O'Moore, A. Hillery, B. (1991). What do teachers need to know? In M. Elliott' (ED.), *Bullying: A Practical Guide to Coping for Schools* (pp.56-69). Harlow: Longman.
- Roland, E.(1989). Bullying: The Scandinavian research tradion, In D. P. Tattum and D. A. Lane(Eds.), *Bully in Schools* (pp. 21-32). Stoke-on-Trent: Trentham Books.
- Sharp, S., and Smith, P. K.(1994). *Tackling bullying in your school*.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Stephenson, P., and Smith, D. (1989). *Bullying in the junior school*, In D. P. Tattum and D. A. Lane (Eds.), *Bullying in Schools* (pp. 45-57). Stoke-on-Trent: Trentham Books.

Tattum, D. P.(1989), *Violence and aggression in schools*. In D. P.

———— and D. A. Lane (Eds.), *Bullying in schools* (pp.7-8)

Tattum, D. P., & Herbert, G. (1993). *Countering Bullying: Initiatives in Schools and Local Authorities*. Stoke-on-Trent: Trentham Books.1.